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 김 병 희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전화 (0344) 914-2732, 팩스 (0344)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isan4-dong, Ili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God's Answers to Man's Questions

by
William MacDonald

Walterick Publishers
P.O.Box 2216
Kansas City Kansas 66110

차 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7
죄	8
구원의 필요성	14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17
구원의 방법	21
일반적인 어려움들	35
관계와 교제	39
확신	45
거룩함	49
신분과 상태	55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을?	58
제자의 도(道).....	61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모르고 있다면,

하지만 당신이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페이지들이 매우 흥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멧세지가 일련의 질문과 대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의문을 가질만
한 것들이고 대답은 성경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
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리스
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제에서부터 시작해 보
겠습니다.

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불법, 곧 하나님이나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뜻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과녁을 벗어나는 것, 또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르다고 여기는 일을 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로마서 3:23, 야고보서 4:17, 요한일서 3:4).

처음 죄는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처음 죄는 하늘에서, 루시퍼 곧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은 후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그 후부터 사단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이사야 14:12~15).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창세기 3:1~13).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용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능력을 지닌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그분의 피조물이 자원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악보다 선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선을 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악을 택할 능력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창세기 2:15-17).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오래 생을 누렸을 것입니다(창세기 2:17).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 그는 하나님께 대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그는 육신의 고난, 질병,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3. 그는 무죄(無罪)함을 잃어버리고, 불의하고 부정하며, 죄 있는 자요 잃어진 자, 원수요 외인(外人)이 되었습니다(창세기 3:7, 에베소서 2:1~3).
4. 그가 만일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면 그는 영원한 파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의 죄악된 본성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마서 5:12절, 13~19절도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은 오직 자신의 본성을 지닌 자손들만을 생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본성은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선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악을 잘 행합니다(시편 51:5).

이 원칙에 대한 예화로써 젤리를 만들어내는 금속제 틀은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젤라틴 디저트 또는 샐러드에게 똑같은 모양을 부여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금속제 틀을 떨어뜨려 찌그러뜨린다면 차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행동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두도 결국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일

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꽤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또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안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한 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선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의, 혹은 적합성이 관계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한 존재입니다(이사야 1:6).

“철저히 부패한 존재”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록 어떤 사람이 혹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예레미야 17:9, 로마서 3:10~18, 7:18). 게다가 그것은, 구원이 관계되는 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로마서 8:8).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 알콜 중독, 부도덕 따위의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흠을 잡으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어떠한 존재이냐도 보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추잡한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정욕적인 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한 죄들입니다(마태복음 5:27,28, 마가복음 7:21~23, 로마서 8:7,8). 그와 같은 죄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이사야 59:1,2).

모든 죄인들은 다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벌에는 등급이 있으며,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가졌었느냐 하는 것과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마태복음 11:20~24).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양심은 물론 창조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이교도가 이 지식에 따라 생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더욱 빛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교도는 참되신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그는 더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로마서 1:20). 이교도는 그리스도가 없이 잃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다음의 질문 중에 하나이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만일 당신

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잃어진 상태에 있으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1.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2.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3. 당신은 당신이 품었던 가장 나쁜 생각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4. 당신의 삶은 빛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서도 거룩합니까?
5.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에도 순결합니까?
6. 당신의 삶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합니까?
7.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선한 일을 항상 실행에 왔습니까?
8. 당신은 “나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도 망령되이 일컬어본 적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9. 당신은 한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10.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합니까?

구원의 필요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인정하거나 면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발견하시는 어떠한 죄라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로마서 6:23).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죄는 미워하시는 반면, 죄인은 사랑하십니다(로마서 5:8).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바램은 그들이 모두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베드로후서 3:9).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우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로마서 3:26).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구원을 바라십니다(에스겔 3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은 죄악된 피조물이 그분의 하늘로 들어가도록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고린도전서 6:9,10). 사실 그분의 공의는 모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히브리서 9:27).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죄인들은 지옥에서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시편 9:17).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므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속성 중 단 하나라도 그분의 다른 속성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직 의롭고 거룩한 방법으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래

도 그분은 옳은 분이 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오직 악한 죄인 대신에 죽어야 할 대리인을 찾으심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리인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합당한 대리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리인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드시 죄인들을 위해 자원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애매한 희생자로 하여금 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대리인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리인을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습니다(이사야 53:4,5).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셨으며,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2, 요한일서 3:5).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요한복음 1:1, 19:30, 골로새서 2:9, 히브리서 1:8).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자원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비록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

라도 참으로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시편 40:7, 요한복음 10:17,18).

우리는 예수님의 죄없는 삶에 의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죄없는 삶에 의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요한복음 12:24).

그분은 왜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그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베드로전서 2:24).

그 대리인의 죽음과 연결된 어떤 특별한 요구 조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만 했습니다(베드로전서 1:19).

왜 그것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히브리서 9:22).

그 피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레위기 17:11).

십자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세 시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님 위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44).

예수님은 그 세 시간의 끝에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속사역이 다 성취되었으며 죄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히브리서 10:14).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몸이 무덤에 묻혔지만 3일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누가복음 24:1~7, 요한복음 19:42).

왜 그것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아들의 사역에 완전히 만족하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의 몸 그대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몸이었습니다(누가복음 24:39).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14~19).

그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후에 구주께서는 하늘로 되돌아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영화롭게, 존귀케 되셨습니다(사도행전 1:9).

그 다음에 그분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사도행전 2:1~4).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사역 자체는 그 영역과 능력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직 그분을 자원하여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써 미국 역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1830년 조오지 월슨이라는 강도가 살인 죄목으로 미국 법원에 의해 필라델피아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교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그를 특별히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월슨은 그 특사를 거절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특사가 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며, 마침내 대법원장 존 마셜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은 그것에 관련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가치를 지니는 서류이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면장을 거절하는 것은 생 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거절된다면 그것은 사면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오지 월슨은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결국 교수형을 받았 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디모데전서 2:4). 하지만 그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분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만 합니까?

그의 죄가 반드시 없어야만 하며, 그는 그로 하여금 천국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만 합니다(요한복음 3:3,5).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에베소서 2:8,9)

“은혜를 인하여”란 무슨 뜻입니까?

은혜란 그 정반대의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은사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로마서 5: 8, 에베소서 2:7).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확신 또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요한복음 3:16, 20:30,31).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조차도 그것을 믿고 떨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야고보서 2:19).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당신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로마서 10:9).

예수님에 관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시는 바를 모두 믿고서도 잃어진 상태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밖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참된 믿음에는 자신 전부를 유일한 주님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합당치 않은 대상을 믿는 믿음은 단지 실망만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를 원하게 될 사람은 오직 자신이 잃어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누가복음 19:10).

누가 죄를 깨닫게 해줍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요한복음 16:8~11).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로마서 10:17).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만일 자신이 그 상태로 죽는다면 자신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요한복음 8:21,24).

그것을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잠언 28:13, 사도행전 16:31).

단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쉬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대단히 값비싼 거래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쉬운 구원이긴 하지만 결코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이사야 1:18).

하나님께서서는 왜 구원이 꼭 믿음의 근거 위에서만 주어진도록 정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오직 그분을 믿는 것만이 모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조차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디도서 3:5).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선 또 모든 죄인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로마서 4:4,5).

믿음은 칭찬받을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자만심을 물리칩니다. “선행”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와 같은 선행을 행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로마서 3:27).

그렇다면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서 2:9).

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이사야 64:6).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온전한 삶을 산다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그 전에 당신의 과거의 죄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전도서 3:15).

그렇다면 점잖고, 자존심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뿐입니다(마태복음 21:31).

천국에 갈 정도로 선하지는 못하지만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하지는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두 부류만이 있을 뿐입니다(고린도전서 1:18).

그렇다면 세상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뻗쳐 있습니다(이사야 55:7, 디모데전서 1:15, 히브리서 7:25).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활을 깨끗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그 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용서와 평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이사야 1:18, 마태복음 9:13, 누가복음 19:10).

예수님의 본을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주 예수님의 삶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은 결코 주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2:24).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길이라면 왜 그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4:4).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잠언 14:12).

황금률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분은 결코 그것을 천국 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복(八福)을 순종함으로써 또는 산상보훈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 가르침도 역시 예수님을 이미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며,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생명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십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로마서 3:20).

십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17
 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갈라디아서 2:16, 3:11).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발견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직선이 곡선을 드러내듯 율법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표준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로마서 5:20, 갈라디아서 3:19).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葬事)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할 뿐입니다(갈라디아서 2:21).

사람이 일생 동안 율법을 지키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까?

그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존재일 테니까요.

사람이 만일 십계명 중 아홉 계명을 지킨다면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만일 사람이 단 한 가지의 계명을 범해도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야고보서 2:10).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현재와 영원의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갈라디아서 3:10).

십계명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디모데전서 1:9,10).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게 합니다(로마서 3:19).

우리는 믿음에 선행을 더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타당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디도서 3:5).

성경 어디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의 가르침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선한 행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어떤 사람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믿음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결과 선한 행위가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구원 다음에 오는 자연스런 결과이지만, 선행이 구원을 얻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에 의해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습니다(에베소서 2:8~10).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교회의 회원이 된다 해도 그것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요한복음 3: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원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인정을 받으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믿음과 품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충분한 안내자로 인정을 받는 지역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유아적에 침례를 받았으므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침례는 구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요한복음 14:6).

하지만 침례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는 유아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기

록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출석이나 자선 헌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 외 비슷한 규례들을 지킨다 해도 그것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것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4:12).

일반적인 어려움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저를 영접하실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으며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7).

믿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뛰는 것처럼 너무 불확실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은행도 파산하고, 기업도 도산하고, 정부도 무너지고, 인간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8).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십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

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지만 제가 계속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
입니다.

계속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
다. 다만 당신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힘을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
기 안에 내주(內住)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로마서 8:14).

제가 만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까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
분이 행하신 기적들이 마귀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
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런 적이 없다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
습니다(마태복음 12:31,32).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리스
도를 거절하고 죽는다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와 똑같
은 심각한 죄를 범하는 셈이 됩니다(마가복음 8:36,37).

그리스도를 의뢰한다는 것은 곧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는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
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
습니다(요한복음 10:10).

언젠가 구원받지 않은 선원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 그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안되는 것에 대한 댓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교회 안에는 대단히 많은 위선자들이 있는데요?

얼마 안되는 위선자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주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믿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만일 당신이 죄를 회개하셨다면, 만일 당신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셨다면, 당신은 올바른 방법으로 믿은 것입니다.

제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 때까지 구원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과 같은 네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 질문에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언 27:1).
2.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끈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언 29:1).

3. “너는 청년의 때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도서 12:1).
4.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2 하반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디모데전서 2:5,6).

관계와 교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들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요한일서 2:1).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한번 주신 후에는 결코 다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로마서 6:23).

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치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두번 치르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 아들이 어느 집안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면 그는 항상 그 부모의 아들입니다. 그는 차후 나쁜 행동으로 부모를 욕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그 부모의 아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는 새로운 출생에 의해 성립되므로 아무것도 그것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요한복음 1:12).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과 의 교제가 단절됩니다(요한일서 1:6).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제란 온 가족이 똑같은 관심을 갖고 공통되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 기인하는 행복한 가족 정신을 말합니다. 다음의 예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판사가 법정에서 한 강도가 유죄임을 발견하고 12개월 감옥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날 밤 그 판사는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어린 아들이 말썽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판사가 자기 아들에게 12개월의 감옥형을 선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판사는 그 일을 판사로서 처리하지 않고 가족의 아버지로서 처리할 것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 말썽을 피웠어도 그 아이는 자기 아들입니다. 단지 아들의 죄로 인해 행복한 가족 관계가 깨어졌을 뿐이며, 그런 상태는 그 아이가 죄를 자백하고 용

서를 받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이층으로 올려 보내져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되겠지요.

이상의 예화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의 죄가 가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지만 가족간의 교제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구원받기만 하면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요한복음 10:28).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한복음 5:24, 로마서 8:38,39, 디모데후서 1:12, 베드로전서 1:5, 유다서 24,25절).

구원받기로 작정한 후에 변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일단 자신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했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구주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요한복음 6:39).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관해 결코 변심하지 않을 것일

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죄를 자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속에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5:17).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가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셈입니다(요한일서 3:9,10).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서도 그 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법적 형벌은 갈보리에서 단번에 치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자기 자녀에 대해 부모의 징계를 집행하십니다(갈라디아서 6:7,8)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녀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때때로 질병이나 역경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1:30).

믿는 자의 죄는 이 세상에서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기

도는 방해로 받게 되고, 그의 열매는 손상을 입게 되며, 그의 앞길은 어두어지게 됩니다. 그는 수치와 회한을 맛보게 되며,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특권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간증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죄는 영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고린도전서 3:15, 고린도후서 5:10).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언급된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는 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형벌을 치루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은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결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결길로 가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

들과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경계할 수 있습니다.

결길로 가는 것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결길로 가는 것에 대한 치료책은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해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확신

제가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면 제가 구원 받았음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일이 제 마음 속에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의 질문이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감정의 경험을 뜻한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5:10~13).

그 말은 제가 그것을 제 몸 안에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 실제로 일어난 곳은 하늘입니다. 바로 거기 그 사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면 그분은 당신을 의롭다 하십니다.

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참으로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
- 2)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확신.
- 3) 이 확신에서 오는 기쁨.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제일 첫째 방법입니다(요한일서 5:13).

느낌이 신뢰할만한 안내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느낌의 곤란한 점은 그것이 너무 변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느꼈다가도 다음 날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일이겠습니까!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요한일서 3:14).
2.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사랑(로마서 7:22).
3. 죄에 대한 새로운 미움(로마서 7:24).
4. 믿음 안에서의 견고한 지속(요한일서 2:19).
5. 내주(內住)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로마서 8:14,16).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거듭났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합당치 못한 가르침 때문일 수가 있고, 사단이 마음 속에 회의를 집어넣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이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7:22,23).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꼭 알아야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경험을 가졌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때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처음 구주를 믿었는지

은 구원받을 때에도 제거되지 않습니다(로마서 7:17).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을 때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베드로 후서 1:4).

그 두 성품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옛 성품은 구제불능할 정도로 나빠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려 합니다(로마서 7:21).

새 성품은 선을 행하려 하며 믿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로마서 7:22).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에도 악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하셨습니까?

옛 성품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며,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로마서 7:24).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받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그리스도인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기가 원할 때에만 죄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갈라디아서 5:17).

옛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죽음에 합당한 것으로 보셨으므로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혁하거나, 개량하거나,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함께 죽은 것으로 보십니다(로마서 6:6).

믿는 자는 옛 성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믿는 자는 그것을 죽음의 위치에 두어 늘 지켜야 합니다. 즉, 옛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로마서 6:11,12).

믿는 자는 새 성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믿는 자는 성경 공부와 기도, 예배, 주님께 봉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다른 일들을 통해 그것을 먹이고 연마하고 격려해야 합니다(갈라디아서 5:22,23).

간단히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예배하는 심령으로 주 예수님께 늘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달성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걸치는 과정입니다(고린도후서 3:18).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실례적인 조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1. 여러분의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4:8).
2.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로마서 13:14).
3.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 안에 살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골로새서 1:27).
4. 유혹의 순간에는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마태복음 14:30).
5. 주님을 위해 항상 바쁘게 지내십시오(전도서 9:10).
6. 육체적인 운동도 하십시오(디모데전서 4:8).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 아래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로마서 6:14).

1.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율법의 형벌을 치루셨으므로

로 이제 율법은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로마서 10:4, 갈라디아서 3:13).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 살인과 간음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결코 하지 않을 일도 사랑을 위해서는 합니다.

십계명이 믿는 자의 생활의 규범이 아니라면 무엇이 믿는 자의 생활의 규범입니까?

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본이요 안내서입니다(요한일서 2:6).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간음치 말라”라고 말했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했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38절부터 42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했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고린도전서 6:19, 갈라디아서 5:16,17).

신분과 상태

만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상태가 온전함에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골로새서 2:10).

믿는 자의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온전한 은총의 위치입니다(로마서 5:1,2).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권리나 공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이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에베소서 1:6).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21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

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 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께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직함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누리시는 만큼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열납되었기 때문입니다(에베소서 1:13,14).

믿는 자의 상태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가지게 되는 매일 매일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의 상태에는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의 상태는 때때로 정도(正道)에서 얼마든지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골로새서 3:8,9).

믿는 자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상태가 믿는 자의 신분처럼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온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과정입니다(골로새서 3:1).

믿는 자의 상태가 그의 신분과 일치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천국 집으로 데려가시는 때에 그의 상태는 그의 신분과 완전히 일치될 것입니다(요한일서 3:2).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신분처럼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도록 만들 것입니다(요한복음 14:15).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을?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예의일 것입니다(누가복음 17:14~19).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시인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에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구주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태복음 10:32,33, 로마서 10:9,10, 베드로전서 3:15).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인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크신 일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마가복음 5:19).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때까지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순종은 즉각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침례는 자기 자신

을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葬事), 부활과 공개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참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음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로마서 6:3~10).

침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례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죽은 후에 영원히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순간 참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2:13).

또 그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인정을 받으며, 성경이 유일한 안내서로 인정을 받으며, 교회의 두 규례(침례와 주님의 만찬)가 준수되며, 좋은 교훈이 가르쳐지며,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지역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함에 있어서 그는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것과 뜨거운 기도와 희생적인 헌금으로써 그 교회의 복지에 공헌하려는 깊은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야 하며, 자신의 삶으로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시 119:9,11).

제자의 도(道)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로마서 12:1,2).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생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가 생계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입니다(마태복음 6:33).

그 말은 제가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뜻이면 당신이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누가복음 9:23~26).

하지만 저는 세상의 안락과 사치를 즐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당신은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본은 주 예수님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누가복음 14:25~35).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우리 친척들을 “미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될 정도로 그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만큼 크기를 원하십니다(누가복음 14:26).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면서도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성경은 그와 같은 태도를 절대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실 만큼 가치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은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굴복을 수반합니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모자라는 그 어떤 것도 불충분합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 발행일 : 1992년 6월 20일 1판1쇄 발행
1997년 10월 5일 2판3쇄 발행
-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 옮긴이 : 김 병 희
- 발행인 : 이 치 일(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No.4-41)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 전 화 : (0344) 914-2732
- 팩 스 : (0344) 917-4520
- 정가 1,200원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7-015-9 03230